

광복100주년 공론마당(2026.6.10) 토론문

너와 나를 가르지 않는 우리나라

: 나라, 시간, 살림의 지평에서

장윤석 (녹색연구활동가)

반갑습니다.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마당의 한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먼저 발제에 나서주신 정규호 선생님을 비롯해 함께 토론을 맡아주신 유정길, 한윤정 선생님 모두 반가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1. 백년대계와 너도나라

광복 100주년이라뇨. 처음 소식을 전해 듣고 놀란 마음 감추기가 어려웠습니다. IMF가 한창이던 98년에 태어난 저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의 지평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조부모들께서 겪으셨을 1945년 광복의 시간을, 그때의 희망을 헤아리기에 저는 너무 어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이미 80여 년이 흘렀고, 곧 남은 20년이 흘러가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이 온다는 이야기는……. 세어보니 만약 제가 올해 아이를 낳게 된다면, 그 아이가 고3이 되는 해이겠군요. 그야말로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그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물에 이어 공기를 사 먹는 세상이 될까요. 후쿠시마의 주민들처럼 방사선 측량기를 늘 지니고 다니게 될까요. 지금의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처럼 전쟁의 한복판에서 일상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걱정하니 남은 20년이 더없이 소중한 여겨집니다. 아마 1926년 또한 제국 열강의 나라의 명운이 바람 앞의 촛불과 같은 풍전등화의 시간이었겠지요. —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 발간되고 조선의 마지막 임금 순종의 장례식을 기해 6·10 만세운동이 일어난 해라고 합니다. — 2026년 또한, 저희가 지금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지금, 여기’의 시간 또한 그와 같이 앞으로의 향방을 가르는 ‘골든 타임’이라는데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핵 위기, 기후·생태 위기, AI 위기, 사회 불평등 위기 등 날마다 울리는 위기의 경종은 너무나 자주 울려 다 닳아버리고 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045년은 아무래도 빛이 돌아온다는 ‘광복’의 원년보다, 어둠이 돌아온 ‘암복’의 원년에 가까워 보입니다. 지금처럼 광복 100주년을 기념이라도 할 수 있는 사회가 우리 앞에 살아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광복 100년’을 20년 후의 다가올 미래로 놓고 예견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20년의 미래 시간 감각을 갖고 지금 현재의 인식과 삶의 태도, 의사결정 기준, 사회구성 원리를 바꿔내는 실천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정규호 선생님의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합니다. 기후과학에서 자주 채택하는 백캐스팅(back casting) 방법론처럼, ‘과거에서 현재로’ 미래를 예측(forecasting)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하는 미래를 상상하고 그 미래의 것을 — 목표, 감각, 지혜 — 거꾸로 현재로 끌어오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1945년 광복이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는 사건(‘무엇으로부터’ 해방의 의미)”이었다면, 2045년 광복 100년은 “새로운 나라,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가는 뜻깊은 여정(어떤 삶, 사회, 문명을 만들 것인가 등 ‘무엇을 향한’ 가치 지향적 의미)”이 되어야 한다는 지점 또한 온마음으로 통감합니다.

하나 떠오르는 일화와 말이 있습니다. 군부독재가 들어서고 시대가 혼란하던 그 때 씨을

함석헌 선생님은 청사진 한 장 품에 안고 홀로 이 사람 저 사람 붙잡으며 우리 이 길로 가자, 함께 가자 다독이며 다녔다고 들었습니다. 그 청사진은 이렇습니다.¹⁾ “모든 잘못의 근본 원인은 너·나를 갈라 생각하는 데 있기에” 우리는 나라를 사유함에 있어서 이러한 너·나·봄을 떠나야 합니다. 그렇게 “나라는 너·나 생각이 없고, 너도 ‘나’라 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나’라 하는 것이 나라요, 나라하는 생각”이라는 것이지요. 그로부터 몇십 년이 지났지만, 이 청사진은 저에게 소중한 건너와 제가 꿈꾸는 나라로 남아있습니다. 새 나라는 너와 나를 가르지 않고 ‘너’도 ‘나’라 하는 나라이구나. 우리가 광복 100주년을 맞아 백년대계를 준비하며 꿈꾸게 될 ‘우리나라’는 너와 나를 가르지 않는 ‘너도나라’입니다.²⁾

2. 생태적 시간관: 미래는 없다, 오직 희망만이 있을 뿐

정규호 선생님의 발제에서 단연 눈에 띄는 대목은 ‘시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미래를 희망보다 불안과 절망의 시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확대되며, 위기감, 공포감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잃어버리고 전환 자체가 어려워질 우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시간’ 인식과 활용 능력은 전환의 중요한 실마리다. ‘미래 인식’이 희미해지는 가운데 ‘미래에 대한 상상력’으로 희망의 서사를 만들고 구체화시켜 나가자”는 제안에 반갑게 손을 맞잡고 싶습니다. 말씀처럼 우리에게 고정변수처럼 여겨온 ‘근대적 시계 시간’과 ‘단기적 시간성’이라는 근시안적인 시간의 지평을 넘어서는 장시안적 시간의 감각, 문법, 문해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20세기 중반 근대성의 폐해를 드러낸 철학자 이반 일리치(Ivan Illich)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집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오직 희망만이 있을 뿐입니다.”³⁾라고요. 그는 ‘기대’와 ‘희망’을 구분해서 사용했는데, 제도에 의해 통제된 결과를 따르는 것을 기대라고 불렀고, 우리의 힘과 능력을 믿는 것을 희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이를 순환적 시간관에 기초한 생태적 희망관(혹은 희망의 생태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희망은 인과적이지도 평면적이지도 않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라는 직선적 시간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생각했을 때 도무지 희망 한 점 찾을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포월(包越)할 수 있는 상상의 영역입니다.⁴⁾

하지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정치생태학자 故문순홍은 생태 담론과 패러다임을 분석하며 오늘날 우리는 두 가지 경향이 공존하는 ‘그리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며,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구시대의 논리가 여전히 지배적이지만, “이것 그리고 저것”이라는 새 시대의 논리가 (느리게) 안으로 파고들고 있다고 말합니다.⁵⁾ “낡은 것은 가고 새 것은 오지 않은”이라는 정치철학자 낸시 프레이저의 저서 제목을 빌려 말하자면 “낡은 것은 가지 않고 새 것은 느리게 파고드는” 것이지요. 즉, 우리는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의 감각과 논리가 한 자리에 공존하는 기묘한 시대이자 어떤 분기점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깝게는 2024년 12월 3일 다시 만난 계엄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1980년 5월의 광주와 연결되는 동시성을 경험합니다. 때마침 이어진 작가 한강의 “산 자가 죽은 자를 구하고,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리는” 말처럼, 그 시공간에서 우리는 현재가 과거와 미래와 동떨어져 놓여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감각합니다. 하지만 계엄이란 연극이 끝난 후, 되찾은 일상에서 우리는 그 연결된 시간관/감을 얼마나 감각하며 살고 있을까요. 단 한 번의 회소식도 들려오지 않은 기후·생태위기와 연이어 퍼져나가는 전쟁들은 막을 내린 적이 없는데 말이지요.

3. 살림의 삼중모색: 세 가지 죽음, 세 가지 생태

이어서 정규호 선생님은 이러한 “새로운 시간관을 바탕으로 체질을 바꾸고 차원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정치 담론과 모델”의 필요를 말씀하십니다. 역시 공감을 담아 ‘그리고’의 문법으로 현주소에 대한 진단과 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실은 저에게 ‘우리나라’의 역사는 자랑스러운 것보다 부끄러운 면이 더 큽니다. 어느샌가 우리나라는 “수출만이 살길이다”는 구호 아래 누군가의 피 위에 서 있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1970년대 베트남 전쟁의 한복판에서 하미와 미라이 등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이 빚어지며 비극의 서곡이 울립니다. — 오늘날에도 우리나라는 홍콩이나 인도네시아에 시위 진압용 장비를 수출하고, ‘K-방산’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각지의 분쟁·전쟁 지역에 무기를 팔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에너지 전환의 면에서도 하루 속히 탈동조화해야 하는 석탄발전과 핵발전을 저개발국에 수출하는 마지막 보루상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비극의 악순환이자 폭력의 순환고리를 마주합니다. 전쟁이라는 아비규환의 과정에서 일어난 집단학살(genocide),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어마무시한 양의 고엽제를 숲에 살포했던 생태학살(ecocide), 그 과정에서 가해에 가담하거나 피해에 놓인 이들의 PTSD와 자살(suicide)은 모두 참담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민간인 학살의 진상규명과 책임을 요청하는 목소리와, 고엽제 피해로 시름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유해한 세계에서 무해한 나라가 있을 수 없고, 유해한 구조에서 무해한 개인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세 죽음(집단학살-생태학살-자살)의 비극을 풀어나갈 살림의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아무래도 살림과 전환의 문제에 하나의 단일한 해(解)는 없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대해, 저는 생명과 생태의 관점과 태도에서 질문을 재정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전환’입니다.⁶⁾ 정규호 선생님이 『녹색국가』에서 누차 강조하는 전환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실에서 각 수준 및 영역별로 흩어져 있는 가능성에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고 관계의 재설정과 위치의 재배치를 통해 (중략) 전환의 힘을 증폭시키”자는 제안과 일맥상통하겠습니다.⁷⁾

저는 이 요원한 문제에서 생명과 그 그물인 생태가 지혜를 선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결된 비극은 연결된 접근으로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광복 100년의 대한민국은 생명과 생태와 환경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나라여야 한다”는 기치를 저는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故신승철 선생님께서 연구한 펠릭스 가타리(Felix Guattari)의 ‘세 가지 생태학(the three ecologies)’의 구도를 이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⁸⁾ 대개 생태를 ‘자연’과 ‘환경’ 등과 같이 고정된 단일 기표로 생각되는 경향이 있지만, 생태는 ‘에콜로지(ecology)’라는 원어와 같이 다차원적 의미, 복수적 지시대상, 다양한 개념적 연동성을 지닌 ‘복수’ 기표입니다. 그렇게 신승철 선생님은 세 가지 생태학의 마음생태, 사회생태, 자연생태라는 삼원도식을 바탕으로 환경관리주의(녹색제도주의), 사회생태주의, 근본생태주의의 사상적 접점을 모색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사상계(思想界)가 우리의 생태계에서 녹색전환, 기후정의, 생명평화라는 각각 뜻깊고 귀중한 흐름을 만들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살림의 길은 이 세 가지 뜻과 힘, 마음 사이에서 삼중모색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생태’를 보다 넓고, 크고, 깊게 이해할 때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듯한 어둠 속에서도 푸른 녹빛을 따라 암중모색을 해나갈 수 있다고 희망합니다.

故문순홍 故신승철 선생님을 기리며

정성과 평화를 담아

장윤석 드림

- 1) 함석헌, 2016[1961], 『인간혁명』, 한길사, 666쪽. “우리의 근본 잘못은 우리가 스스로 역사의 책임자 노릇을 하려 하지 않고 서서 기다리려 한 데 있다. 모든 잘못의 근본 원인은 너·나를 갈라 생각하는 데 있다. 나라는 너·나 생각이 없고, 너도 ‘나’라 하는 데 있다. 모든 것을 ‘나’라 하는 것이 나라요, 나라하는 생각이다. 그러므로 너·나 몸을 떠나지 못한 사람은 인생 구원을 말할 자격이 없고,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정도 이상을 모르는 마음은 사회 경륜을 의논할 수가 없다. 그놈이 그놈이라 하지 말고, 이놈도 나다 하게 되어야 한다.”
- 2) 장윤석, 2019, 〈너도나라〉, 《씨알의 소리》.
- 3) 이반 일리치, 2013, 권루시안 역, 『과거의 거울에 비추어』, 느린걸음.
- 4) 장윤석, 2024, 〈희망, 시간, 생명〉, 《사상계》 제창간 1호/통권 206호.
- 5) 문순홍, 2006, 『생태학의 담론』, 아르케, 40쪽. “울리히 벡은 『정치의 재발견』 서문에서 오늘 “우리들은 ‘그리고’의 시대, 즉 두 가지 경향이 공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한다. 료타르는 이 세계를 안으로 품어드는 세계라고 부른다. 이전에 명료하게 둘로 구분되어 중심에 속하지 못하는 것들은 배제되고 주변화되고 타자화되었지만, 지금은 중심 세계 내 그들로 인식되고 이 안으로 품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 세계 내에서 기존 세계의 논리인 ‘이것 아니면 저것’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미 품어들이고 있는 안은 ‘그리고’의 논리라는 거품들로 메워지고 있다. 밖은 존재하되 이미 안으로 파고들고 있으며, 제3세계는 존재하되 이미 제1세계 안으로 들어와 있다. 동일하게 자연은 인간 밖에 존재하는 것이되 인간 사회 안에서만 발견한다.”
- 6) 존 폴 리더락, 2016, 김가연 역, 『도덕적 상상력』, 글항아리, 참조.
- 7) 정규호, 2025, 『녹색국가 -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이론과 전략』, 모시는사람들.
- 8) 장윤석, 2025, 「Resistance Against the Three Ecocides: From Vung Ang to Samcheok, Activist Research on the Road ‘We(YCEA)’ Have Taken」,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 논문.